SK증권

자산전략 주간 포인트 시즌 2.

7월 넷째 주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SK증권 자산전략부

채권전략. 윤원태 3773-8919, yunwt@sks.co.kr
주식전략. 강재현 3773-9922, jaehyun.kang@sks.co.kr
퀀트전략. 황지우 3773-8072, jeewoo.hwang@sks.co.kr
경제환율. 류진이 3773-9226, jinleecon@sks.co.kr
R.A. 박유진 3773-9938, youjin.park@sks.co.kr
R.A. 원유승 3773-9181, ys.won@sks.co.k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Contents

SK증권 리서치센터

1 자산시장 Point to Point

2 그림으로 보는 Top to Bottom

3 주간 Check Point

Compliance Notice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Summary: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경제/금리 미국 2분기 성장률 서프라이즈 기록. 지금은 오히려 서프라이즈가 반가운 상황

- 금주 미국 빅테크 등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진행되었고,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에 못 미치면서 글로벌 증시 약세를 야기.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반기 증시를 불편하게 했다면 이제는 실제 경기와 실적이 관건인 Good is good, Bad is bad 국면
- 미국은 성장률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2분기 물가지표는 예상치 하회하며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재확인. 9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침체 우려가 다소 해소되며 시장의 걱정거리를 하나 덜어주었던 측면이 강했음
- 다음주에는 9월 FOMC 이전 마지막 FOMC가 예정되어 있음. 여전히 9월 인하 가능성 변함 없다고 판단. 디스인플레이션 확인된 가운데 실업률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경기도 현재 과열국면에서 중립 수준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임. 경기가 중립 수준이라면 금리도 긴축 정도를 조절할 필요
- 단, 지난 2019년 인하 당시 복기해보면 직전 회의에서 기자회견은 기대보다 도비쉬하지 않았던 경험. 다음주 미국 재무부 리펀딩 계획 발표도 예정되어 있어 단기적으로 금리는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에 무게. 하지만 경기와 실적을 확인하고 싶은 시장 입장에서는 금리 상승보다 크게 하락하는 것이 더 우려되는 상황일 것

주식 전략 지난주와는 다른 이번주. '펀더멘털 우려'가 추가되었다면 좀 더 보수적으로

- 지난 주까지는 증시가 과열이었기 때문에 여러 위험들을 과도하게 받아 들이며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지만, 금주 조정은 그 양상이 조금 달랐음
- 이번에는 미국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이익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하락하며 주도주인 AI의 성장 내러티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이라, 펀더멘털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시장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을 추천. 만약 차주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이 걱정을 해결해 주면서 시장이 반등한다면 그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고려해 볼 만. 분명 이번 하락으로 기술적 지표들은 단기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이익에 대한 자신감이 다시 상승하기 전까지는 반등이 나와도 강하지 않을 확률이 높음
- 최근 2분기 들어 미국 경기가 실제로 둔화되기도 했고 그에 대한 걱정이 높았던 만큼 기술주 실적도 부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임. 실제로 AI 과잉 투자 우려를 낳았던 알파벳의 경우 가장 중요한 매출 부문 중 하나인 구글 광고가 경기에 민감. 그러나 최근 들어서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며 곧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기도 함. 이번 2분기 실적 시즌 내 펀더멘털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다 해도 3분기부터는 이익에 대한 자신감이 다시 회복되면서 AI 투자에 대한 시각 역시 '기다릴 만 하다'는 인내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생각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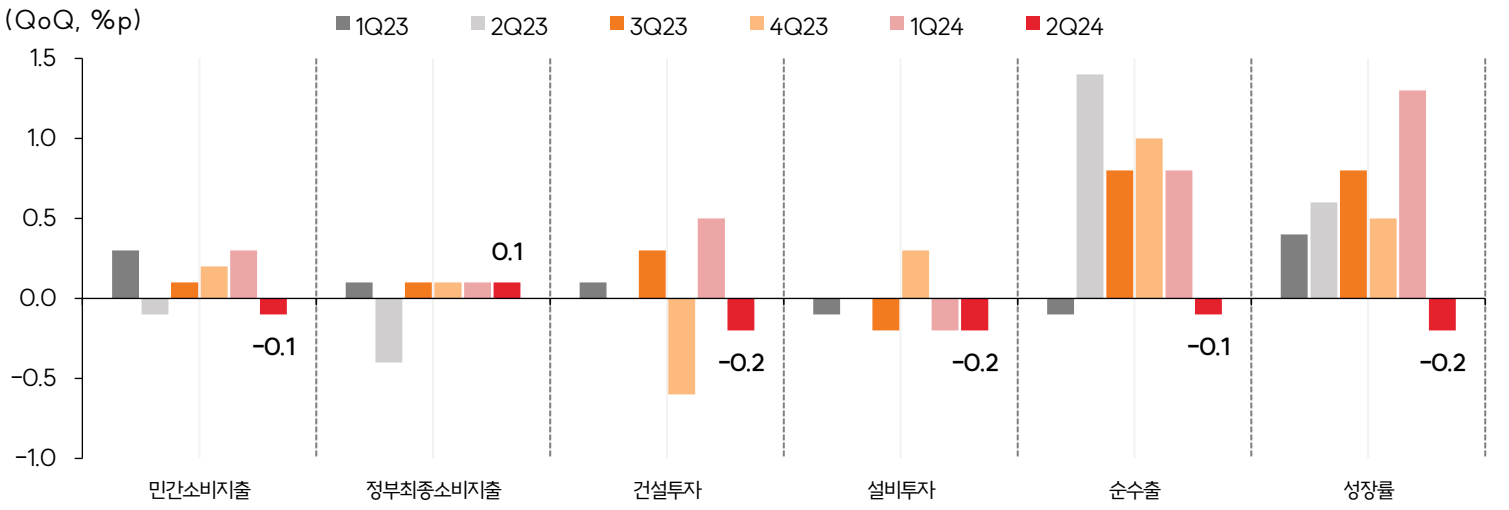
Part 1.

자산시장
Point to Point

한국 2분기 성장률 예상치 하회, 전분기대비 역성장

- **한국 2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0.2% 역성장, 전년동기대비 2.3% 성장하며 예상치 하회**
  - 한국의 2분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2.3% 성장해 예상치(2.5%)와 전월치(3.3%)를 모두 하회. 1분기 깜짝 성장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작용하며 2분기 성장률 부진이 이미 예상된 바 있지만 부진의 폭은 시장 예상보다 컸음. 4~6월 국내 내수 관련 지표들이 이미 부진하게 발표되었고, 이를 반영하며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모두 전기대비 역성장 기록. 다만 정부부문과 수출이 성장을 견인
  - 수출 호조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 2분기 에너지 수입 증가로 순수출 기여도 마이너스 기록했으나 최근 하향 안정화된 유가, 지속될 수출 호조세 감안할 때 하반기 재차 플러스 기여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내수 관련해서는 그간 소비를 제약했던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이 다소 완화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하반기에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소비, 건설투자 모두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내수의 다른 축인 설비투자의 경우에도 한국은행 기존 전망대비 부진했음. 한국은행은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으로 ①올해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 도입 시점이 기대보다 다소 늦춰졌다는 점과 더불어 ②기체 결함으로 기존에 예정되었던 항공기 수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설비투자 부진에 일조했다고 설명. 이 부분이 언제 해결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

한국 성장률 항목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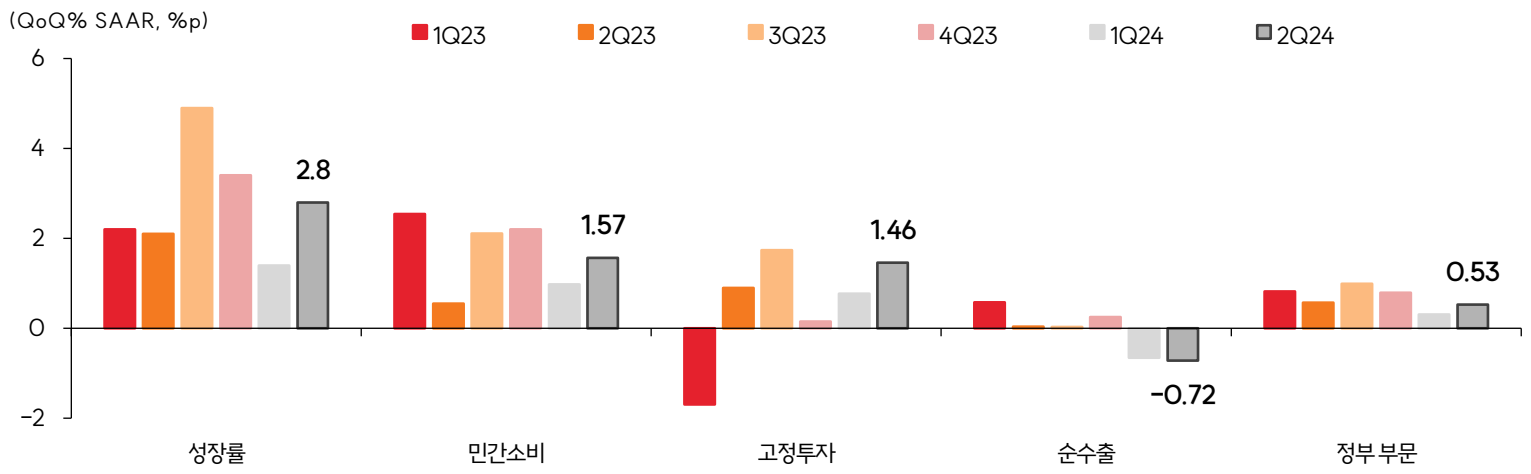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CEIC, SK증권

미국 2분기 성장률 서프라이즈!

- **미국 2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연율화 기준) 2.8%로 예상치 2.0%를 큰 폭으로 상회**
  -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연율화 기준 2.8% 성장해 예상치(2.0%)와 전월치(1.4%)를 모두 상회. Atlanta GDP now는 2분기 성장률을 2.6%로 예측하고 있어 시장 예상치 2.0%는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지만 서프라이즈 폭이 매우 컸음
  - 1분기에는 성장이 민간소비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2분기에는 고정투자와 민간소비, 정부 부문이 고르게 성장에 기여. 민간소비에서는 서비스 소비는 헬스케어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기여도는 전분기대비 +1.49%p에서 +1.02%p로 소폭 둔화. 반면 재화소비가 -0.51%p에서 +0.55%p로 개선됨. 특히 자동차 소비가 4개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로 전환됨. 투자 부문의 경우 운송장비, 정보처리장치, 컴퓨터 및 주변기기 중심으로 증가
  - 다음주에는 7월 FOMC가 예정되어 있고 9월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속 인하 직전 마지막 FOMC. 전일 성장률은 서프라이즈 기록했지만 2분기 PCE 물가는 전분기대비 2.3%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를 하회. 근원 물가는 2.9%로 1분기의 3.7% 대비 큰 폭으로 둔화
  - 성장률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확인, 빠르게 오르는 실업률을 감안할 때 이번 지표가 9월 금리 인하를 방해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여전히 9월, 12월 인하 단행 전망 유지

미국 성장률 항목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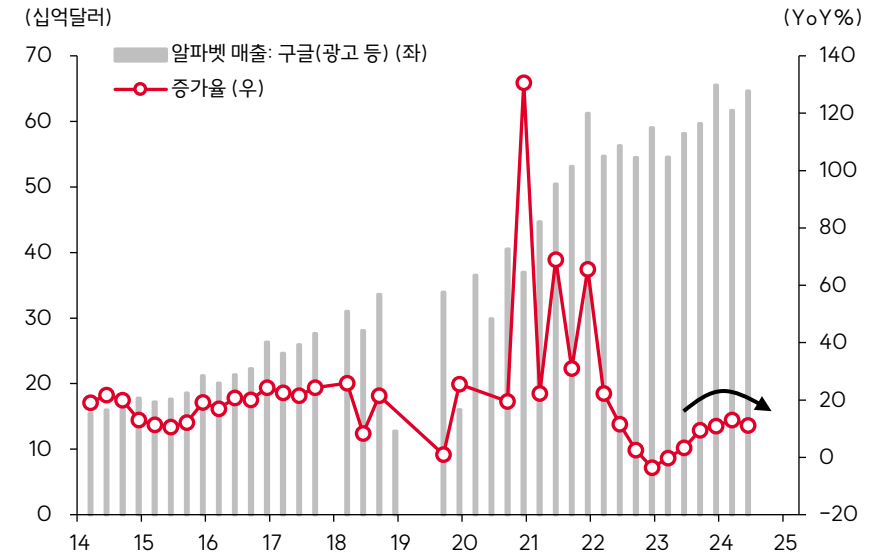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CEIC, SK증권

이익에 대한 자신감 결여와 AI 투자 회의론, 그 실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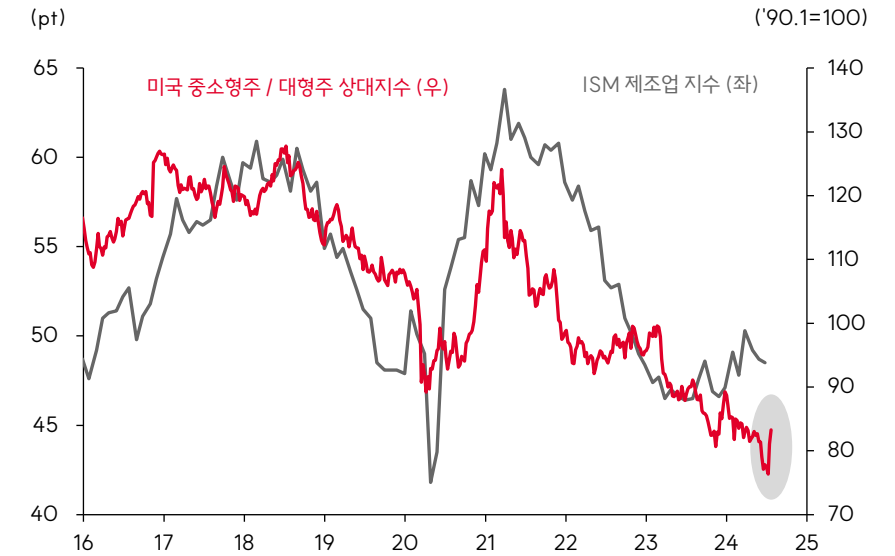
- 미국 증시에서의 기술주 펀더멘털 우려가 확대된 것이 AI 성장에 대한 의구심 마저 키우면서 국내 증시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KOSPI 지수는 외국인의 현/선물 대규모 매도로 2,700선까지 급락. 특히 알파벳이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과소 투자 위험이 과잉 투자의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언급한 부분이 오히려 문제로 인식되었음. 그 배경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강도의 약화(작년 4분기보다도 낮은 2.47% 기록), 매출 성장률 둔화 등 현재 이익에 대한 자신감이 약해진 점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당장 투자로 인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비용 인식은 앞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와중에 주가는 크게 상승한 상황이다 보니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욕구가 발현된 것. 이것이 AI 투자에 대한 회의론으로 까지 이어진 듯
- 사실 알파벳의 광고 매출은 경기에 민감한 부문. 최근 2분기 미국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는 양상이었다 보니 결국 이러한 문제까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임. 만약 여기서 경기가 더 약해지는 양상이라면 이런 회의론 역시도 쉽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 있음. 그러나 다행히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점차 가시고 있고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으며 시장도 경기 개선 가능성을 점진적으로 인지해 나가고 있기에 하반기 실적 시즌은 이번과 같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

기술주 이익에 대한 자신감 하락 및 AI 투자 의구심 확대. 이는 경기에 무관하지 않음



자료 : Refinitiv, SK증권

다행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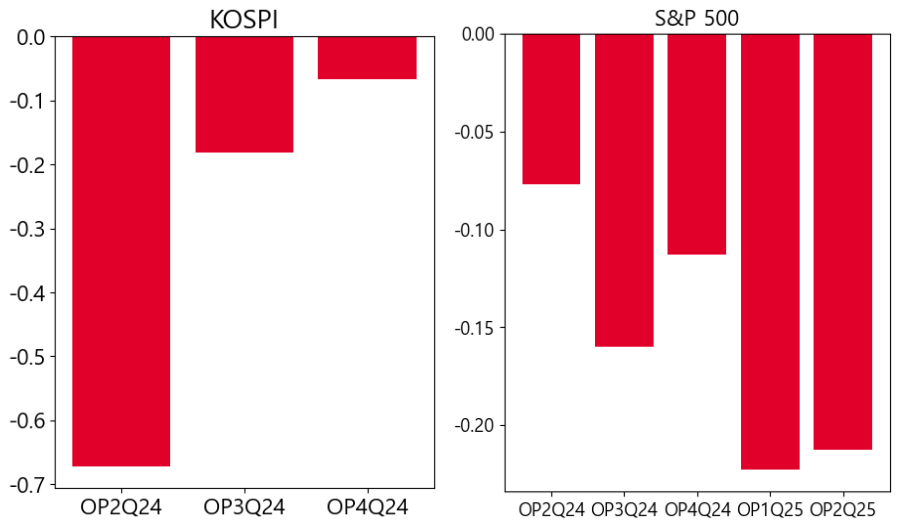


자료 : Refinitiv, SK증권

싸늘해진 분위기와 높아진 민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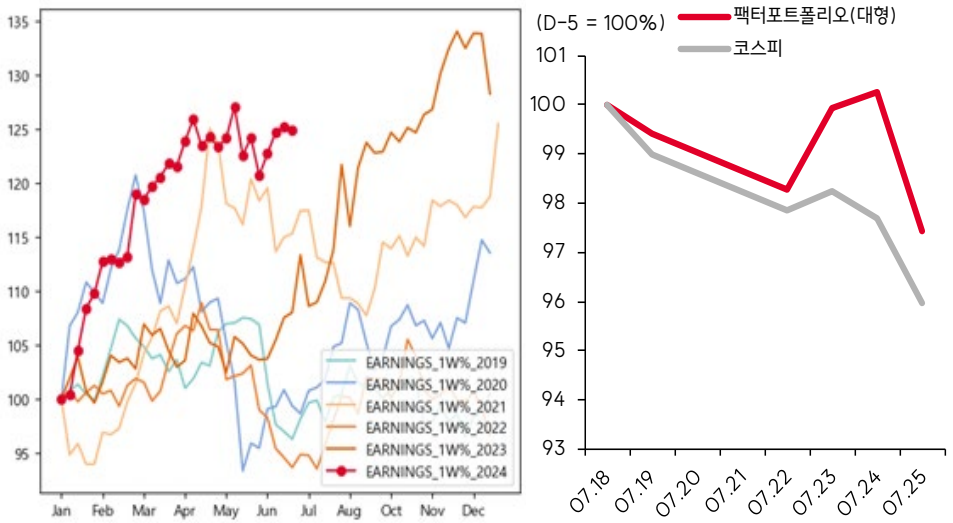
- **그래도 믿음이 있다면 이익 모멘텀**
  - 전 주는 코스피, 코스닥, S&P 500 구성 종목들의 전체 영업이익 추정치가 모두 하향 조정 되며 시장 분위기가 더욱 냉각됨
  - 이익 모멘텀 팩터는 전망이 크게 어긋나는 외부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조정/하락장에서도 어느정도 방어적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는 투자자들은 주가가 조정 받을 때 실체가 있는 종목을 찾고 보통 그 실체는 기업의 수익이기 때문 (옥석 가리기 내러티브)
  - 그러나 실적 가이던스 자체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 이익 모멘텀 팩터도 부진할 수 있는데 미국의 빅테크 실적 우려가 AI 테마까지 확대되면서 실적과 무관하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발생하였음. 이어질 실적 발표들에도 우려가 심화된다면 퀄리티 하부 팩터인 안전성 팩터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 차주는 물가, 경기 및 기업 실적들이 대거 발표될 예정이며, 최근 주가 변동성이 강했던 만큼 결과 해석에 따라 방향성(경기 침체 or 낙폭 과대 인식)이 크게 구분된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

코스피 및 S&P 500 구성 종목들의 분기별 영업이익 추정치 주간 변화량



자료 : Quantiwise, Bloomberg, SK증권

이익 모멘텀 L-S전략 및 추천 팩터 포트폴리오의 주간 수익률



자료 : Quantiwise, SK증권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K 증권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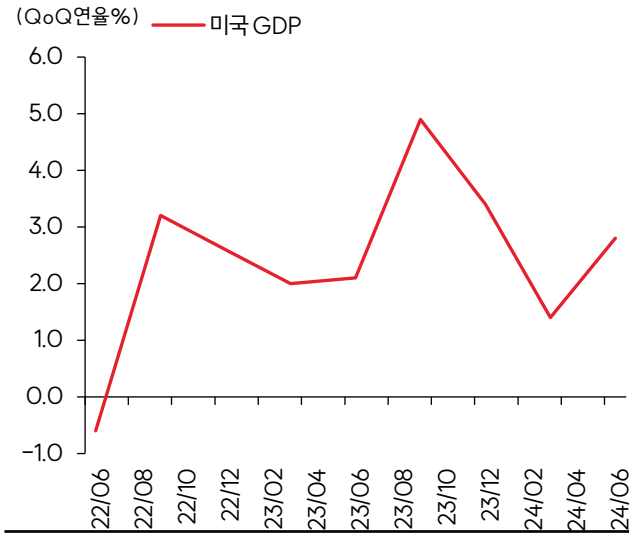
그림으로 보는
Top to Bottom

1. Macro Core 3 Point

SK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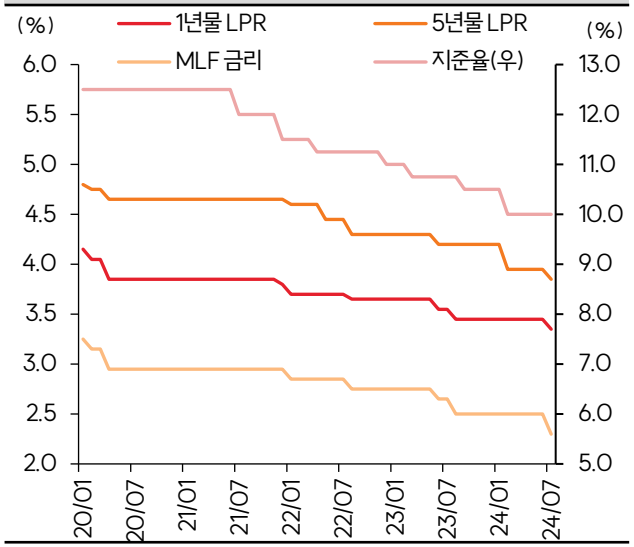
- Core Point 1: **미국 2Q GDP, 서프라이즈로 미국 경기의 탄탄함 입증**
  - 미국 2Q GDP, QoQ 연율화 기준 +2.8%로 예상(+2.0%) 및 전월(+1.4%) 크게 상회. 고정투자와 정부 부문의 커진 성장 폭이 서프 이끌어
- Core Point 2: **중국 기준금리, 깜짝 인하**
  - 중국 인민은행, 7월 사실상 기준금리인 LPR 1년·5년 각각 10bp 인하. 1년 금리는 23년 8월, 5년 금리는 2월 이후 첫 인하. 이어서 역RP 7일 금리 10bp, MLF 1년 금리도 20bp 인하. 3중전회에서 구체적인 추가 경기 부양책 나오지 않아 실망감이 상당했던 상황 속, 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기 부양 의지 보여줘
- Core Point 3: **한국 2Q GDP, 쇼크**
  - 한국 2Q GDP, YoY +2.3%로 예상(+2.5%) 및 전월(+3.3%) 하회. 특히 QoQ로는 -0.2%로 역성장 기록. 예상 대비 더 좋지 않은 모습 보여줘. 민간 소비 지출의 감소, 수입이 크게 확대되어 순수출이 역성장 기록한 점이 주 요인

Core Poin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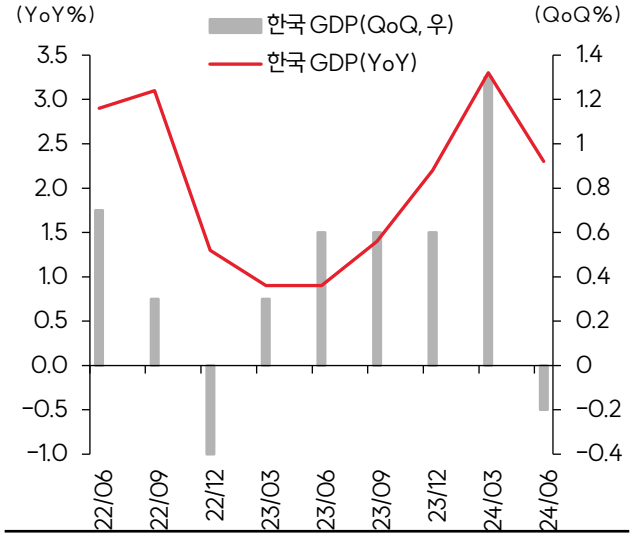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SK증권

Core Point 2



자료 : Bloomberg, SK증권

Core Point 3



자료 : Bloomberg,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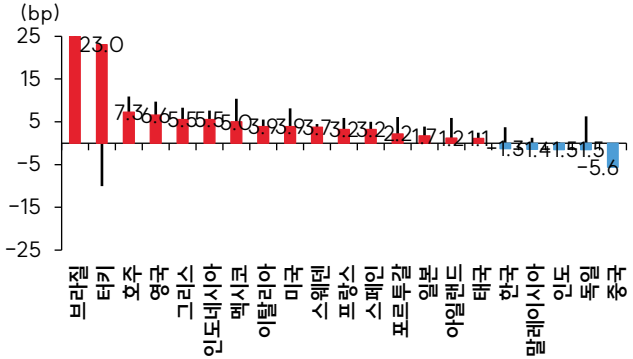
2. FICC Core 3 Point

SK증권 리서치센터

- 주간 글로벌 금리는 상승.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미국 2분기 GDP 서프 및 미 재무부 바이백 매입 전액 거절 등으로 소폭 상승해 4.24% 기록
- 유가는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상 개시 등 지정학 리스크 완화로 인해 70달러 후반대로 하락
- 환율은 주초 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 강세에 힘입어 하락했으나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 이후 위험 회피 심리 증대로 재차 상승해 1380원대 초반 기록

금리

1) 글로벌 금리 주간 상승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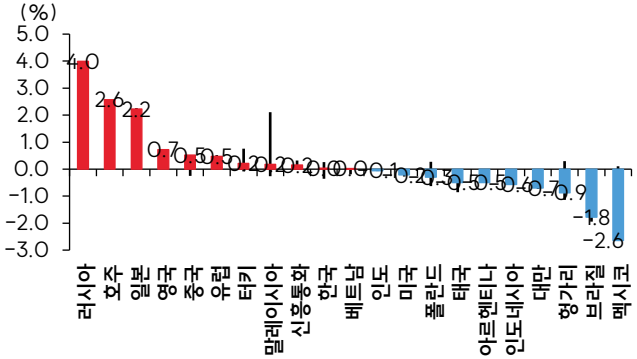


2)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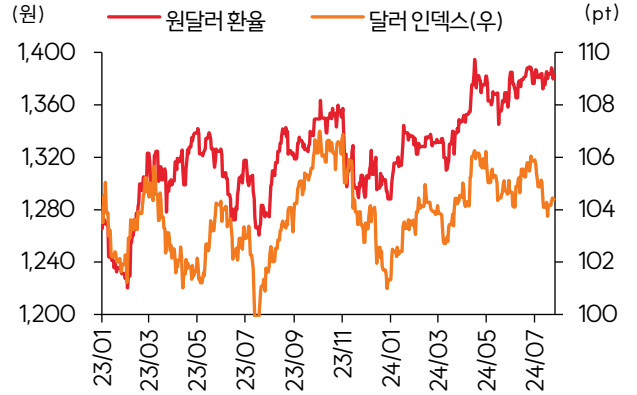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SK증권

환율

1) 글로벌 달러대비 주간 절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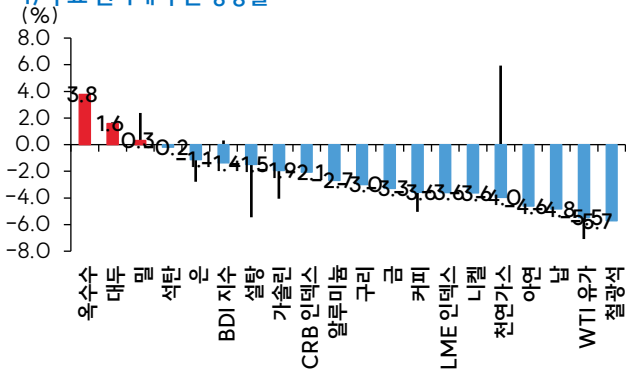
2) 원달러 환율 및 달러 인덱스 추이



자료 : Bloomberg, SK증권

원자재

1) 주요 원자재 주간 상승률



2) 국제유가 변동(WTI 기준)

자료 : Bloomberg,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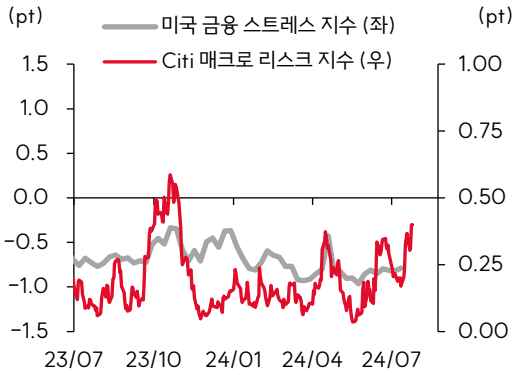
3. 위험과 자산가격

SK증권 리서치센터

- 매크로 리스크 지수는 지속적으로 올라 이제는 지난 4월 금리 상승기, 6월 경제지표 부진기를 넘어서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현재 리스크가 확대되는 데는 당시 보다 여러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번에 기술주의 펀더멘털 위험이 높아지면서 하이일드 스프레드도 소폭 상승. 즉, 아무리 금융환경이 완화적이어도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연쇄적으로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다시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에 다시 압박을 가할 수 있음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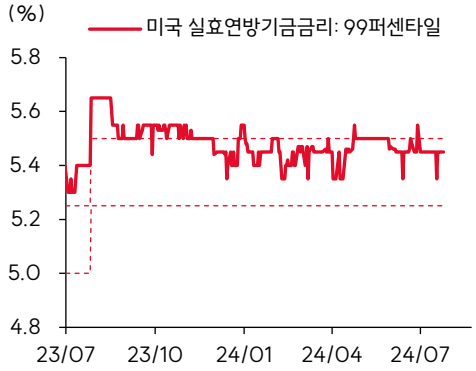
위험

(1)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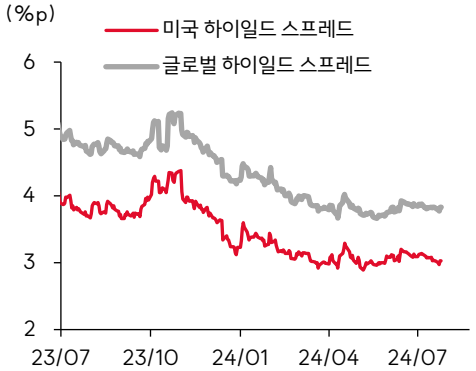


(2) 신흥국

(3) 단기자금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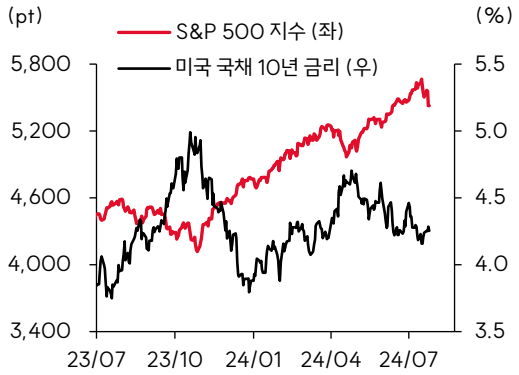


(4) 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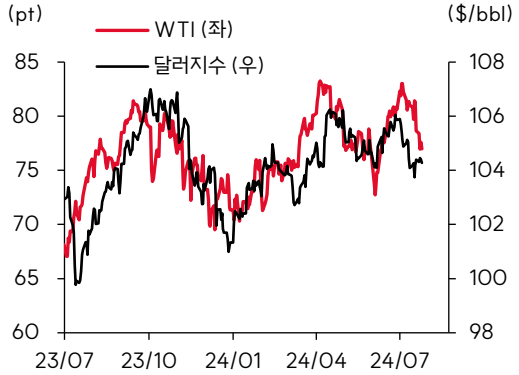


자산가격

(1) 금리 vs 주식



(2) 원자재 vs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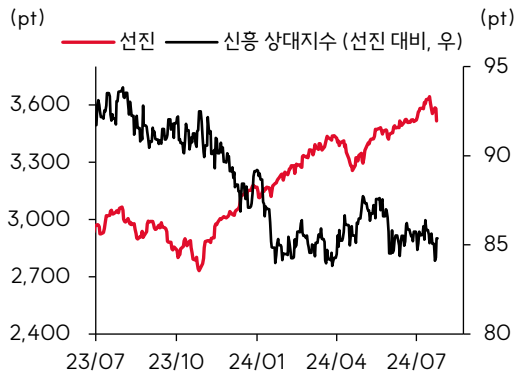
4. 글로벌 주식시장: 가격

SK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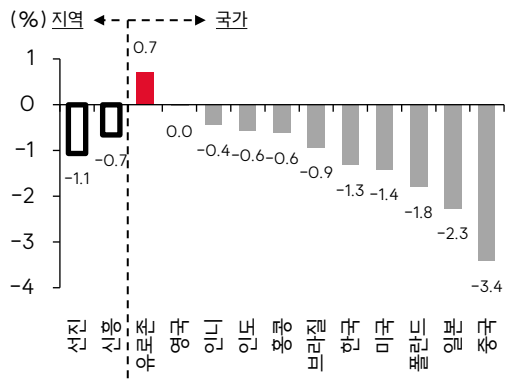
- 미국 증시가 조정 받으며 신흥 대비 선진 증시의 낙폭이 더 컸음. 전체 시장 가운데 중국 증시가 가장 크게 하락한 편이었는데, 전주 성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기도 했고 삼중전회에서의 정책 기대가 컸던 만큼 시장 반응이 싸늘했던 것으로 보임. 다만 그래도 중국은 최근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했고 1년물 MLF 금리도 지난 '20년 이후 처음으로 인하
- 미국 증시에서는 방어주인 유틸리티, 헬스케어만 전주비 상승. 저변동성 스타일이 선방했으며 모멘텀이 가장 부진한 성과를 기록한 스타일이이었음

주식: 지역/국가

(1) 글로벌 증시 추이 및 선진 vs 신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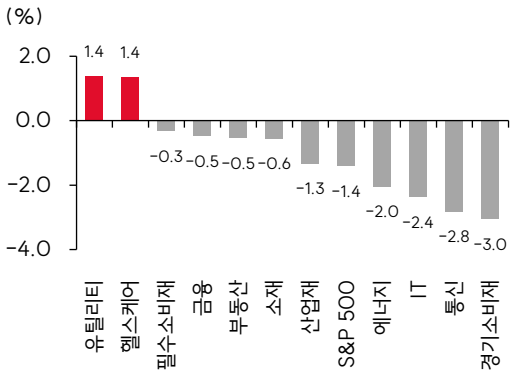


(2) 국가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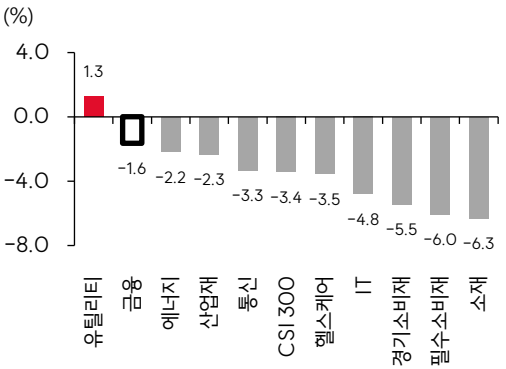


주식: 섹터

(1) 미국 S&P 500 주간 섹터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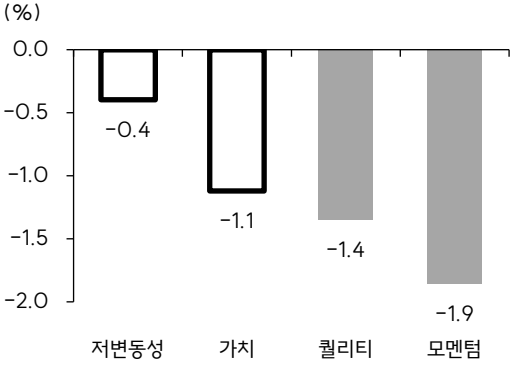
(2) 중국 CSI 300 주간 섹터별 수익률



주식: 스타일

(1) 미국 및 신흥 증시: 성장 vs 가치

(2) 스타일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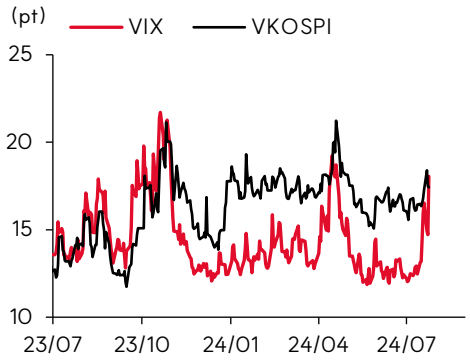
5. 글로벌 주식시장: 심리와 기술적 지표

SK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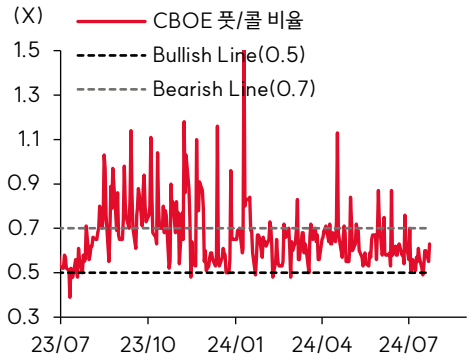
- 기술주 변동성 확대되면서 VIX 지수 재차 급등해 19pt를 기록하기도 했음
- 증시 하락으로 미국, 한국 등의 기술적 지표는 이제 거의 과매도 시그널에 근접해 갔음.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심리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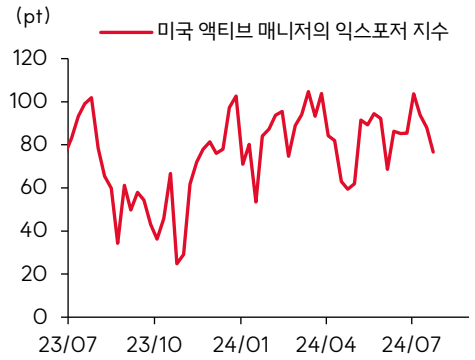
(1) 변동성 지수: 미국 vs 한국



(2) 미국 개별 주식 옵션 거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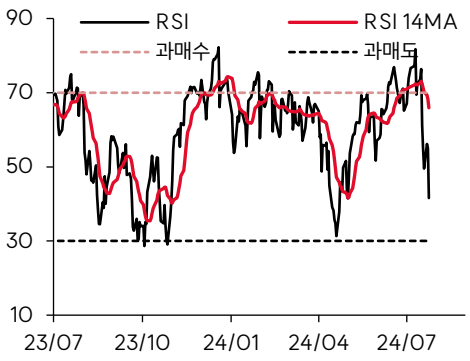


(3) 미국 액티브 매니저 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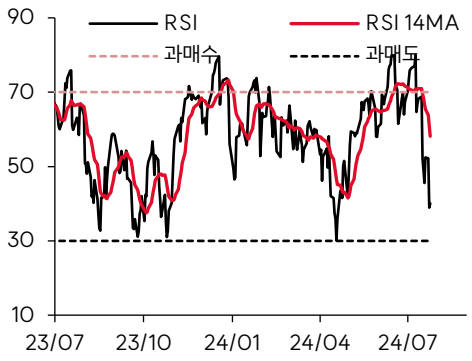


기술적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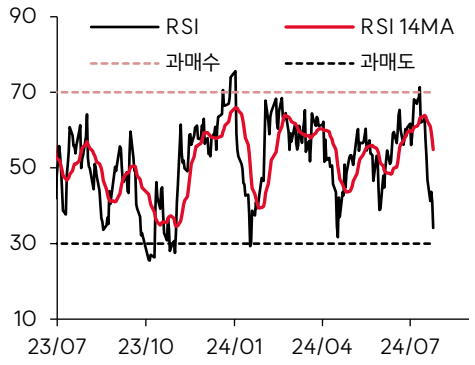
(1) RSI: 미국 S&P 500



(2) RSI: 미국 나스닥



(3) RSI: 한국 KO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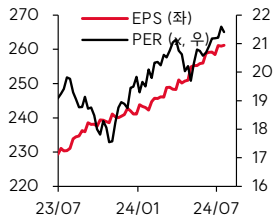
6. 글로벌 주식시장: 이익과 밸류에이션

SK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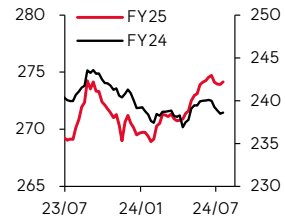
- 전주에 이어 유럽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이어지는 중. 대신 다행히 미국 증시 이익 추정치는 실적 시즌 지나면서 반등에 성공. '24년 보다는 '25년 추정치가 좀 더 나은 흐름 보이는 중. 한편 미국 증시 안에서도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추정치 움직임이 갈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
- 한편 국내 증시의 이익 모멘텀은 여전히 양호한 상황. 더불어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미국 S&P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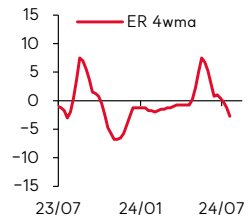
12개월 선행 PER, 및 EPS



연간 EPS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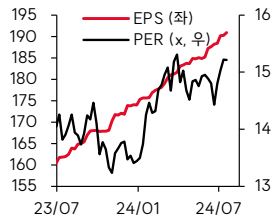


이익수정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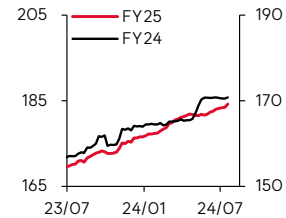


일본 TOP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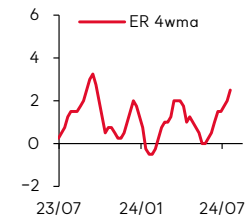
12개월 선행 PER, 및 EPS



연간 EPS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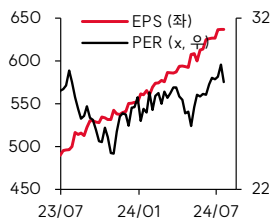


이익수정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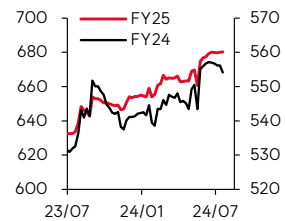


미국 나스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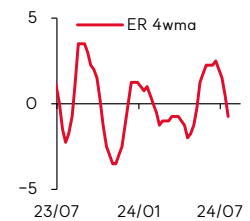
12개월 선행 PER, 및 EPS



연간 EPS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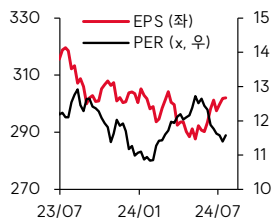


이익수정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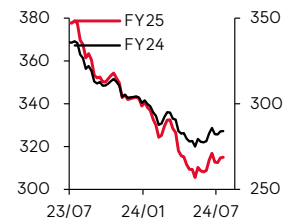


중국 CSI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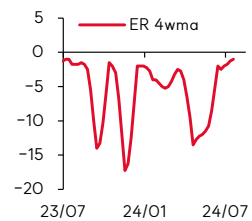
12개월 선행 PER, 및 EPS



연간 EPS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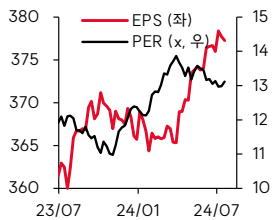


이익수정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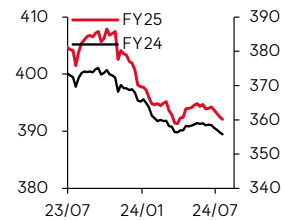


유로존 Stoxx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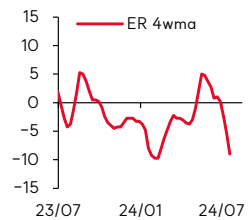
12개월 선행 PER, 및 EPS



연간 EPS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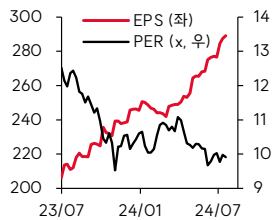


이익수정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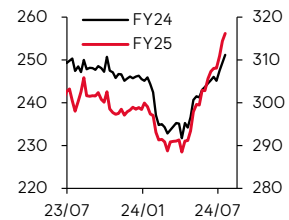


한국 KO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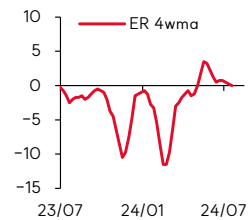
12개월 선행 PER, 및 EPS



연간 EPS 추정치



이익수정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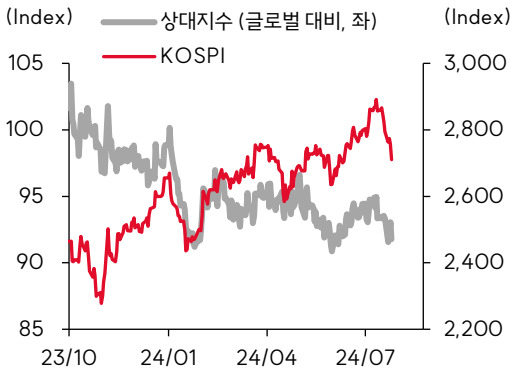
7. 국내 주식시장: 가격

SK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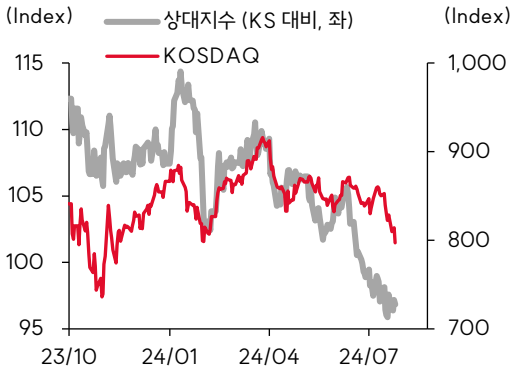
- KOSPI 지수는 미국 기술주 하락 영향을 받으며 2,700선으로 급락. KOSDAQ 지수는 800선을 하회했으며 심지어 25일에는 지난 1월 저점 수준까지도 하회. 업종별로는 IT(HW, 반도체), 2차전지가 골고루 큰 폭 하락. 조선, 건강관리, 화장품/의류, 통신 등이 선방. 2차전지 주가 부진으로 성장 지수는 가치 대비 언더퍼폼 이어 나갔음
- 외국인의 매도로 대형주가 중소형주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 로우볼 스타일은 전주대비 1.3% 하락에 그쳤음

시장

(1) KOSPI 지수 (+ 글로벌 증시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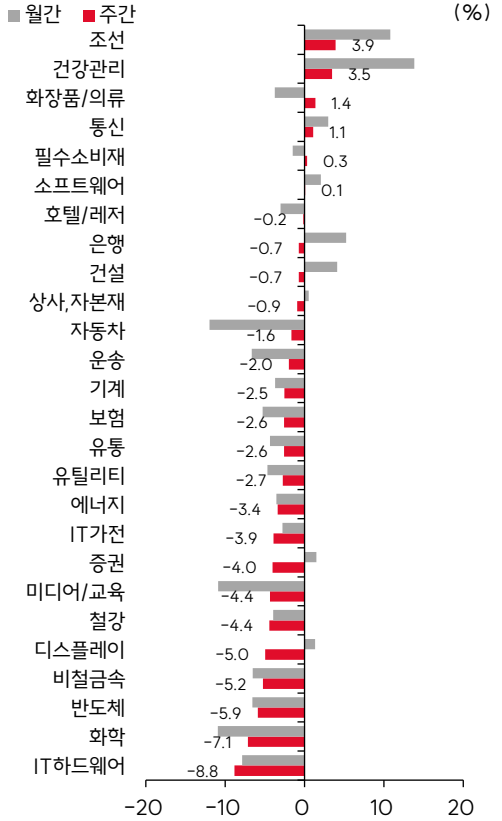


(2) KOSDAQ 지수 (+ KOSPI 지수 대비)



섹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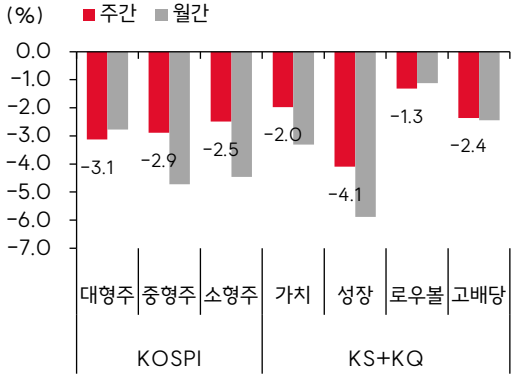
KOSPI 섹터별 수익률



스타일

(1) 성장 vs 가치

(2) 스타일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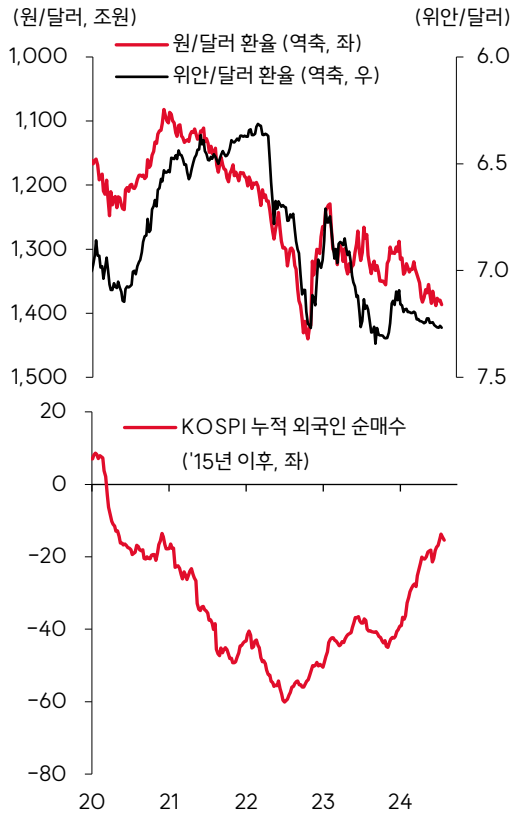
8. 국내 주식시장: 수급

SK증권 리서치센터

- 외국인은 금주 KOSPI 시장에서 현물을 7,780억원 매도. 이는 월간 2.2조 순매수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었음. 또한 지난 19일부터 일주일 간 K200 선물을 2.3조원 순매도. 이번에는 선물과 현물 매도 모두가 지수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음
- 외국인들이 기계, 반도체를 가장 강하게 순매도. 기계 주가가 크게 올랐던 것에는 물론 양호한 실적도 있었겠지만 AI 투자 확대에 따른 전력 부족 내러티브도 있었음. AI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자 기계에서도 차익실현 매물이 크게 출회된 것으로 보임. 다만 이를 기관이 모두 받아가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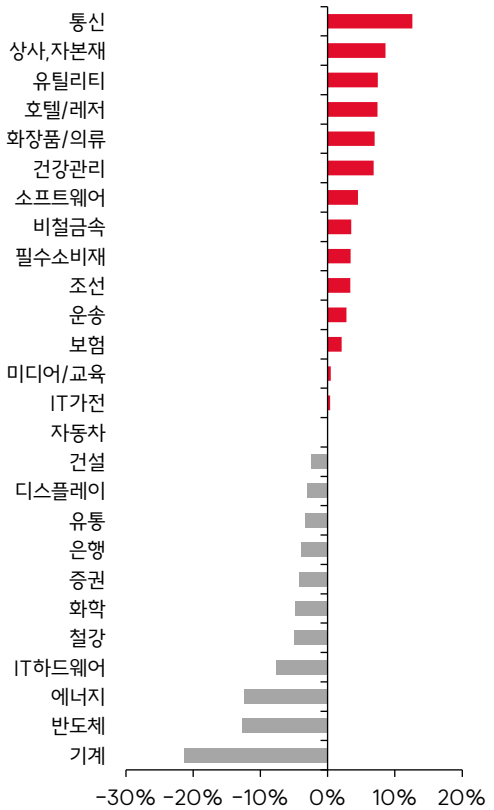
수급: 시장

KOSPI 외국인 순매수와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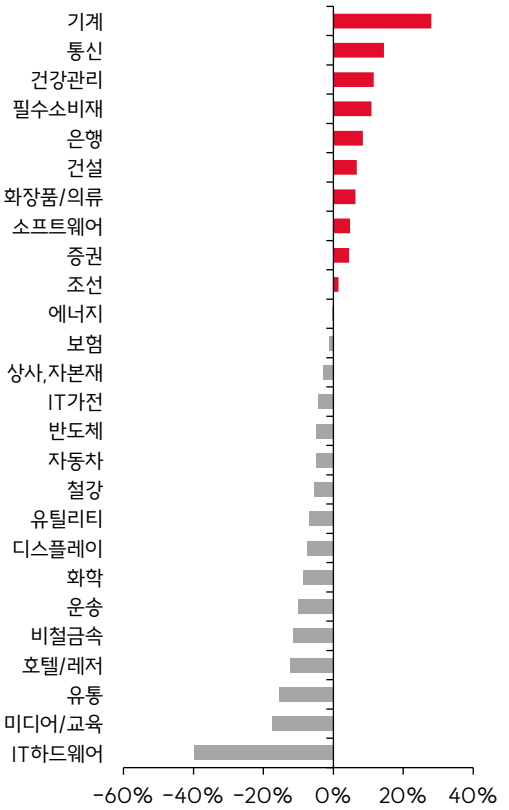


수급: 섹터

1) 주간 KOSPI 섹터별 외국인 순매수 강도



2) 주간 KOSPI 섹터별 기관 순매수 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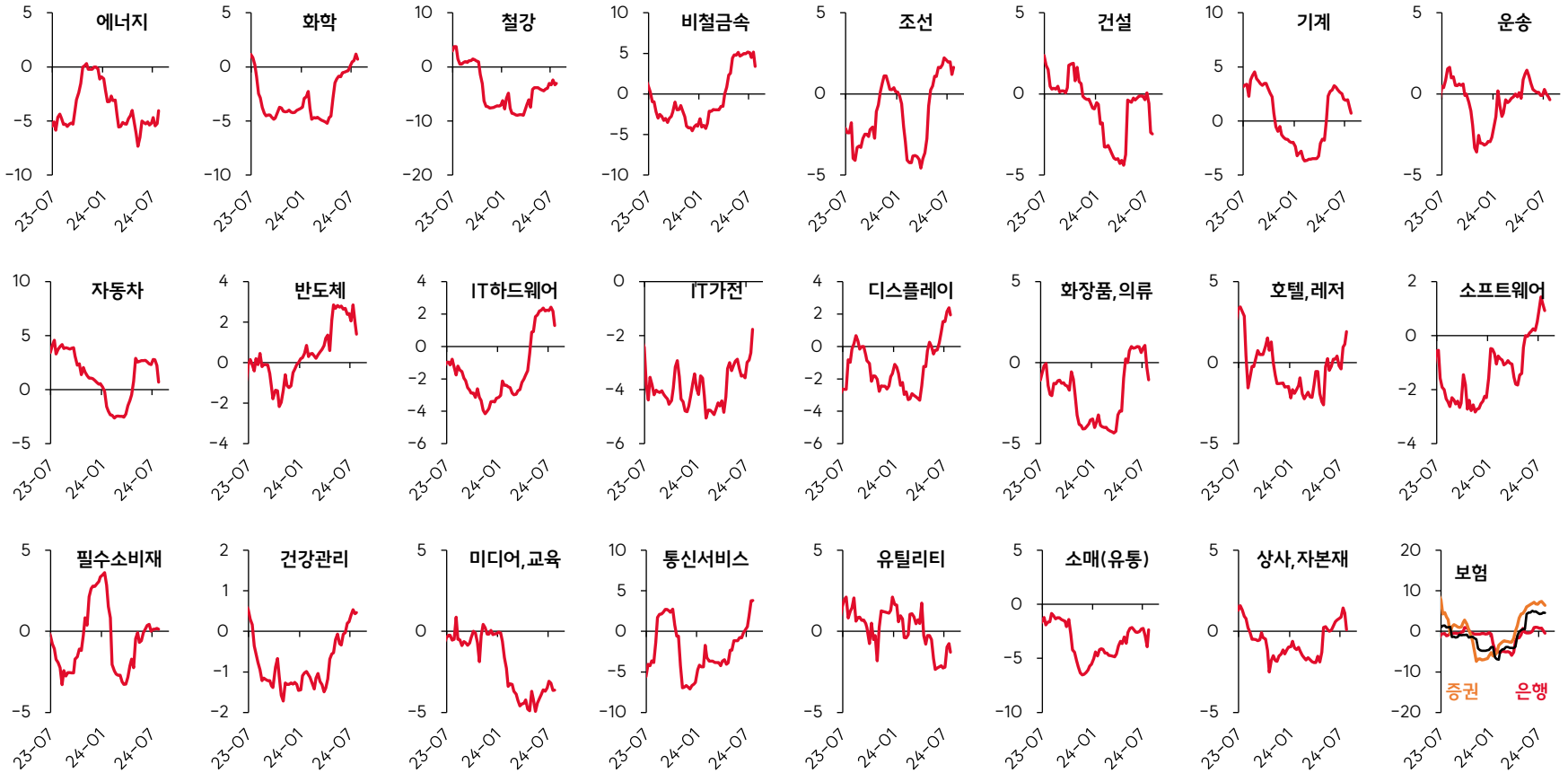


9. 국내 주식시장: 이익

SK증권 리서치센터

- 주가가 하락해서 그런지 대부분 업종의 이익 모멘텀이 둔화되는 양상. 그 중 조선, 호텔/레저, 통신 정도가 이익수정비율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는 업종이었음. 왜 조선과 통신 등이 이번 하락장에서도 선방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
- 화장품 업종의 이익수정비율은 (-)권에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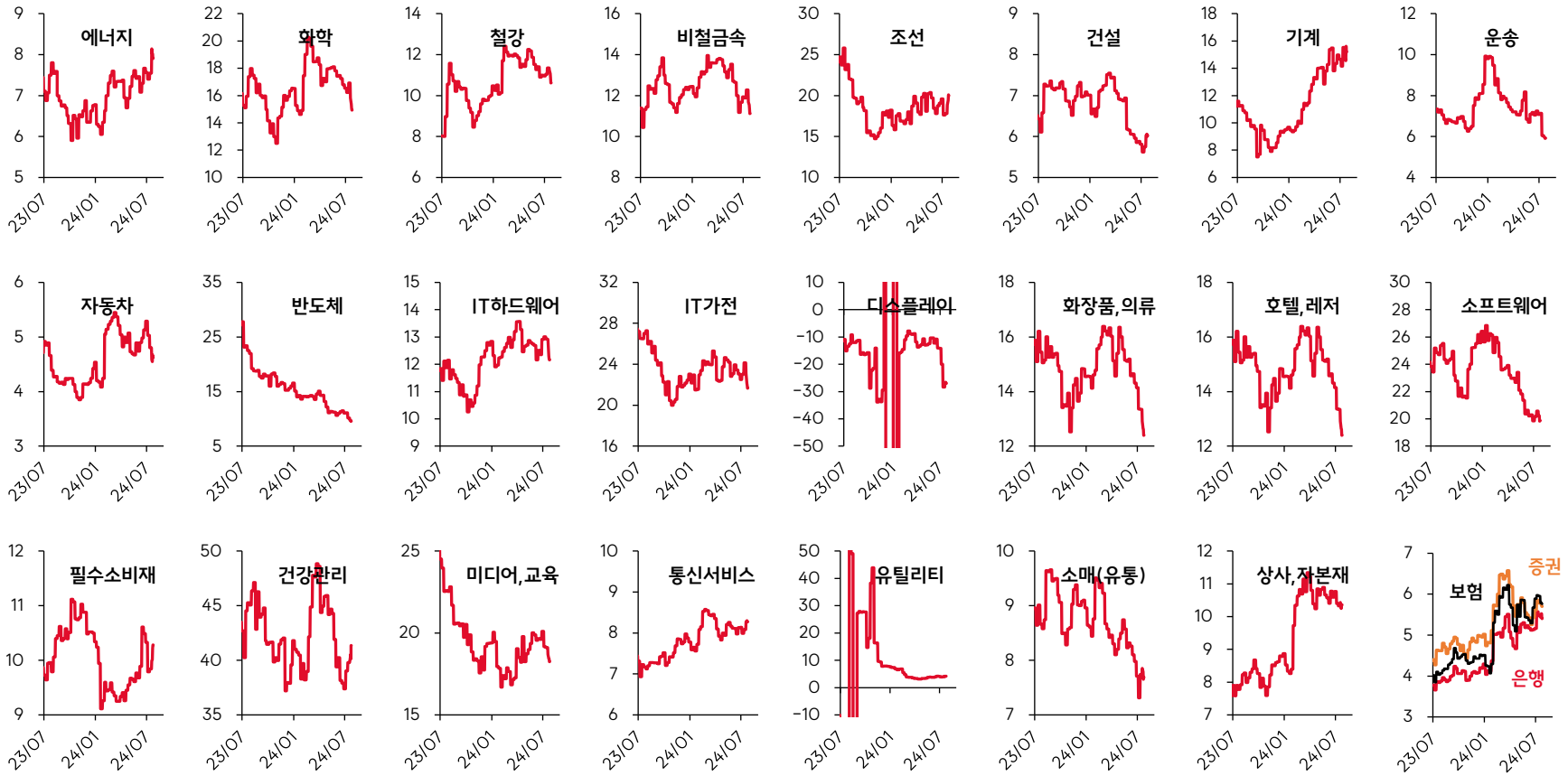
KOSPI 섹터별 이익수정비율 (%)



10-1. 국내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SK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섹터별 12MF PER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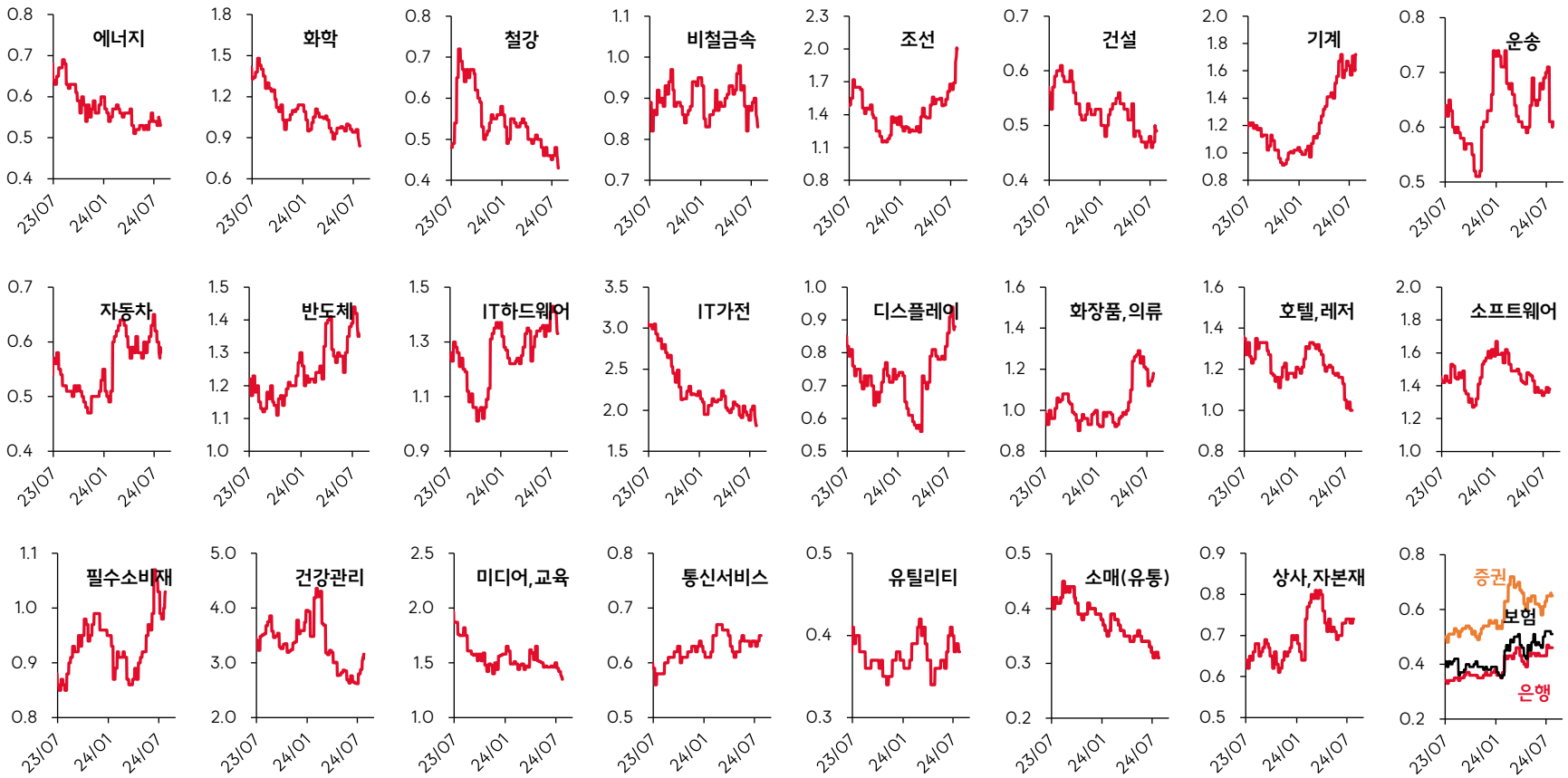


10-2. 국내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SK증권 리서치센터

- 2차전지 업종 추가적으로 조정 받으면서 밸류에이션은 끝도 없이 내려가는 중. 그나마 트럼프가 전기차 관련 나름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반등에는 성공
- 조선의 12개월 선행 PBR이 2.0배까지 상승했음. 분명 이익 모멘텀이 양호한 것은 사실이나 밸류에이션 부담이 빠르게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는 있겠음

KOSPI 섹터별 12MF PBR (X)



11. 국내 주식시장: 종목

SK증권 리서치센터

- 실적 시즌에 접어들면서 이익 모멘텀 상위 종목의 변화가 다수 있었음. HD현대일렉트릭이 엄청난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1위에 랭크. 실제로 주가가 실적 발표 직후 급등했음. 다만 결국 AI 내러티브가 약화되며 상승 폭 일부 되돌렸음. 기관이 강하게 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드디어 차익실현 하는 모습 관찰
- 이익 모멘텀 양호한 종목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강도가 모두 센 종목에는 삼성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에너빌리티, HD현대중공업, 대상이 있음
- 외국인 매수 강도는 강한데 기관의 관심이 낮았던 종목에는 현대글로비스, 한미반도체, LG전자, 기아, 키움증권, HL만도 정도를 꼽아볼 수 있음

KOSPI 200 주간 종목 동향: 이익 모멘텀 상위

순위	종목코드	종목명	섹터	시총 (조원)	12m fwd. EPS (x)	투자의견	목표주가 (원)		이익수정비율 (%)		주가 수익률 (%)			수급주체별 주간 순매수강도: 코스피 종목 내 백분율 (높을수록 수급 강함)		
							현재	-1W	현재	-1W	1W	1M	YTD	외국인	기관	개인
1	A267260	HD현대일렉트릭	기계	12.06	20.29	매수	440,909	440,909	81.8	81.8	9.7	12.8	306.9	1%	99%	5%
2	A105560	KB금융	은행	33.89	6.43	매수	107,556	107,556	77.8	77.8	-0.5	6.3	55.3	3%	89%	93%
3	A086280	현대글로비스	운송	4.43	6.49	매수	153,877	152,732	53.9	53.9	-1.8	4.1	23.4	89%	14%	35%
4	A009540	HD한국조선해양	조선	13.01	10.32	매수	201,200	194,200	36.4	36.4	3.8	21.1	52.0	54%	46%	40%
5	A280360	롯데웰푸드	필수소비재	1.71	12.11	매수	211,250	211,250	50.0	50.0	-0.1	1.1	46.5	48%	82%	23%
6	A005940	NH투자증권	증권	4.32	6.17	매수	16,036	16,036	58.3	58.3	-2.7	4.5	27.8	41%	71%	30%
7	A016360	삼성증권	증권	3.88	5.09	매수	52,286	52,286	69.2	69.2	-3.6	13.6	13.0	75%	75%	22%
8	A207940	삼성바이오로직스	건강관리	61.99	53.96	매수	1,050,000	1,024,737	73.3	37.5	2.5	18.0	14.6	98%	97%	1%
9	A010620	HD현대미포	조선	4.10	32.49	매수	115,462	112,385	30.8	30.8	2.2	15.4	20.9	20%	91%	14%
10	A042700	한미반도체	반도체	13.14	40.25	매수	220,000	220,000	40.0	40.0	-11.7	-21.6	119.6	99%	4%	7%
11	A066570	LG전자	IT가전	18.03	8.91	매수	142,381	142,381	52.4	42.9	-0.6	-0.8	8.3	100%	27%	2%
12	A120110	코오롱인더	화학	1.02	6.17	매수	61,400	61,400	40.0	40.0	-6.3	-4.8	-17.0	35%	46%	62%
13	A000270	기아	자동차	45.98	4.43	매수	158,125	158,125	50.0	50.0	-4.1	-10.9	15.0	95%	7%	32%
14	A003230	삼양식품	필수소비재	4.63	16.98	매수	696,667	696,667	22.2	22.2	-2.5	-6.1	184.3	2%	96%	92%
15	A039490	키움증권	증권	3.22	4.47	매수	160,929	160,929	46.2	46.2	-9.2	0.1	26.7	70%	22%	73%
16	A034020	두산에너빌리티	기계	12.13	22.45	매수	26,667	26,667	16.7	16.7	-9.9	-7.7	19.1	96%	73%	6%
17	A329180	HD현대중공업	조선	15.76	28.94	매수	190,615	186,769	15.4	15.4	5.0	18.4	37.6	82%	87%	10%
18	A032350	롯데관광개발	호텔,레저서비스	0.74	-53.21	매수	17,875	17,875	40.0	40.0	-3.3	0.9	3.9	45%	39%	55%
19	A204320	HL만도	자동차	1.83	6.55	매수	55,333	55,333	11.1	11.1	-3.0	-12.8	-0.9	82%	20%	63%
20	A001680	대상	필수소비재	0.85	7.62	매수	33,000	33,000	25.0	25.0	-6.1	-11.9	18.1	74%	75%	23%

주: 코스피 200 지수 내 투자의견 중립 이상 종목 중 1. 이익수정비율(1M) 레벨 높고, 2. 이익수정비율(1M) 전주대비 개선된 폭 높고, 3. 목표주가 상향률(1M) 높은 종목 순)
자료 : SK증권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K 증권

Part 3.

주간
Check Point

주간 경제 캘린더

SK증권 리서치센터

날짜	국가	지표		예상	이전
7/22 (월)	중국	LPR 1년·5년 금리 결정 (%) (7월)	3.35 3.85	3.45 3.95	3.45 3.95
7/23 (화)	미국	기존주택판매 (백만건) (6월)	3.89	3.99	4.11
	한국	생산자물가지수 (YoY%)	2.5	2.6	2.3
	한국	생산자물가지수 (MoM%)	-0.1	0.1	0.1
7/24 (수)	미국	S&P글로벌 제조업·서비스업 PMI(속) (pt) (7월)	49.5 56.0	51.7 54.4	51.6 55.3
	미국	건축허가건수(확)·신규주택판매 (백만건) (6월)	1.45 0.62	1.45 0.64	1.40 0.62
	유로존	HCOB 제조업·서비스업 PMI(속) (pt) (7월)	45.6 51.9	46.0 53.0	45.8 52.8
	독일	HCOB 제조업·서비스업 PMI(속) (pt) (7월)	42.6 52.0	44.0 53.1	43.5 53.1
	독일	GfK 소비자신뢰지수 (pt) (8월)	-18.4	-21.0	-21.6
	한국	소비자신뢰지수 (pt) (7월)	103.6	101.0	100.9
7/25 (목)	미국	GDP 성장률(속) (QoQ연율%) (2Q)	2.8	2.0	1.4
	미국	헤드라인·근원 PCE물가지수(속) (QoQ%) (2Q)	2.6 2.9		3.4 3.7
	미국	내구재 수주·근원 내구재 수주 (MoM%) (6월)	-6.6 0.5	0.3 0.2	0.1 -0.1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 (pt) (7월)	87.0	88.9	88.6
	한국	GDP 성장률(속) (YoY%) (2Q)	2.3	2.5	3.3
	한국	GDP 성장률(속) (MoM%) (2Q)	-0.2	0.1	1.3
7/26 (금)	미국	헤드라인·근원 PCE물가지수 (YoY%) (6월)		2.5 2.6	2.6 2.6
	미국	헤드라인·근원 PCE물가지수 (MoM%) (6월)		0.0 0.1	0.0 0.1
	미국	개인소비지출 (MoM%) (6월)		0.3	0.2
	미국	미시간대 기대인플레(확) (%) (7월)			2.9
	미국	미시간대 5년 기대인플레(확) (%) (7월)			2.9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기대지수(확) (pt) (7월)			67.2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확) (pt) (7월)			66.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평가지수(확) (pt) (7월)			64.1

날짜	국가	지표	예상	이전
7/29 (월)	독일	소매판매 (MoM%) (5월)	0.0	-1.2
7/30 (화)	미국	JOLTs 신규구인건수·자발적 퇴직 (백만건) (6월)	8.35 -	8.14 3.46
	유로존	GDP 성장률(속) (YoY%) (2Q)		0.4
	독일	GDP 성장률(속) (YoY%) (2Q)	0.4	-0.2
7/31 (수)	미국	FOMC 금리 결정 (%) (7월)	5.50	5.50
	미국	고용비용지수 (QoQ%) (2Q)	0.7	1.2
	미국	ADP 민간 고용 (천건) (7월)	140	150
	중국	NBS 제조업·비제조업 PMI (pt) (7월)		49.5 50.5
	유로존	헤드라인·근원 소비자물가지수(속) (YoY%) (7월)		2.5 2.9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 (%) (7월)	0.10	0.10
	일본	산업생산(잠)·소매판매 (MoM%) (6월)	-0.5 0.4	3.6 1.7
	한국	산업생산·소매판매 (MoM%) (6월)	0.6 1.0	-1.2 -0.2
8/1 (목)	미국	ISM 제조업 PMI (pt) (7월)		48.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확) (pt) (7월)		51.6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pt) (7월)		51.8
	유로존	HCOB 제조업 PMI(확) (pt) (7월)		45.6
	독일	HCOB 제조업 PMI(확) (pt) (7월)		43.5
	영국	BOE 통화정책회의 (%) (7월)		5.25
	한국	수출 (YoY%) (7월)	7.0	5.1
8/2 (금)	미국	비농업 고용 (천건) (7월)	190	206
	미국	실업률 (%) (7월)	4.1	4.1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MoM%) (7월)	0.3	0.3
	미국	헤드라인·근원 공장 수주 (MoM%) (6월)		-0.7 -0.5
	한국	소비자물가지수 (YoY%) (7월)	2.4	2.4
	한국	소비자물가지수 (MoM%) (7월)	0.1	-0.2

일정		
	7월 3주	**[화]** 미 국채 2년물 입찰, 실적(알파벳, 테슬라, LVMH,비자) **[수]** 실적(IBM) **[목]** 비트코인 컨퍼런스(~27), 실적(SK하이닉스, 현대차) **[금]** 파리 올림픽 개막
	7월 4주	**[월]** 미 재무부 분기 리펀딩(QRA) 발표 **[화]** 실적(MS, AMD) **[수]** 미 재무부 분기 리펀딩(QRA) 세부 계획, 실적(메타) **[목]** 실적(애플, 아마존) **[금]** 실적(엑손모빌)